

투데이 포커스

내일밤 9시부터 405 프리웨이
20시간 전면 폐쇄 > 12면

한인마켓, 햄살 출시 앞두고
쌀 세일 한창 > 중앙경제

다저스, 최근 48경기서 40승
플레이오프 예약 > 스포츠섹션

오늘의 날씨

음력 7월10일

일출 AM 6:15 일몰 PM 7:39

LA 날씨

16일(금)	17일(토)	18일(일)
--------	--------	--------

“값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귀한 발견”

조선 도검 미 박물관 보관 밝힌 이석재씨

국내 통틀어 300여점 뿐 ... 희소가치 높아

“한국에 남아있는 조선 도검은 300점에 불과합니다. 그 가치를 어떻게 책정할 수 있겠습니까.”

스미스소니언 국립자연사박물관(NMNH)에 보관된 조선도의 가치에 대해 경인 미술관의 이석재 관장(사진)은 “값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발견”이라고 했다.

그는 조선도검 감별의 달인이자, 주요 논문만 20여편을 썼고, 도검의 녹을 벗기는 방청 처리 작

업의 독보적 전문가이기도 하다.

-이번 발견의 의의는.

“2자루중 일본 장군도로 분류된 조선도는 희소가치가 뛰어나다. 일본도로 분류된 이유는 옷철 때문이다. 그러나 칼날 두께나 규격, 형태, 칼자루에 달린 나비형태의 수술은 전형적인 조선의 것이다. 일본 장인이 조선에 상납했거나, 조선 장인이 일본 형식을 차용했다고 본다. 조선과 일본의 특징이 융합



된 이 도는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다.”

-문화재적 가치를 말한다면.

“조선도검은 국내 박물관을 통틀어 300여점에 불과하다. 절대적 수치가 부족한 상황에서 해외 박물관에 잠자는 우리 도검의 발견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다.”

-국적을 잃은 우리 문화재가 또 해외 박물관에서 발견됐다.

“해외에서 국적이 뒤바뀐 우리

문화재의 존재 가능성은 과거부터 익히 예상됐던 바다. 그러나 실제로 입증된 사례는 그다지 많지 않다. 이번 발견은 우리 문화재를 바르게 알리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선도검의 중요성은.

“인류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예외일 수 없다. 문화의 교류와 국가의 강성이 첨예화된 유물이 무기다. 특히 도검은 당대 공예의 총합이 집결된 종합예술이다. 하지만 도자기, 서화, 불상에 밀려 도검은 관심도가 낮다.”

정구현 기자